

한국여성단체연합 소식

제12호 982/3



지난 1월 22일 있었던 '제12차 정기총회'를 마치고

차례

자유논단 새 정부에 바라는 교육개혁	• 2	여성운동정보 근로자과건법 제정에 관한 한국여성단체연합의 입장 "김대중 대통령당선자는 정부인수과정에서 여성공약을 실행하여 국가위기 극복에 여성참여 기회를 확대시켜야 합니다!" 여성양심수 석방을 촉구하는 성명서	• 25 • 28 • 30
여성정책 98년 여연의 사업방향 제2차 근로여성복지기본계획에 대한 한국여성단체연합의 입장 UN여성차별철폐협약에 대한 해설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의 위상과 권한에 관하여	• 4 • 6 • 12 • 18	women21 이야기 어제 이혼할 뻔했다	• 31
더불어가는 여성운동 여성 주도의 정보통신운동을 준비하는 대구여성회 소모임 -통신을 통한 글쓰기모임	• 20	회원단체소식 활동일지 행사안내 회원단체부설기관 주소록 회원단체주소록	• 32 • 45 • 46 • 47 • 48
여연소식	• 22		



사단
법인

한국여성단체연합

새 정부에 바라는 교육개혁

오 성 숙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회장)



김영삼정부는 4차에 걸쳐 교육개혁안을 발표하고 의욕적으로 교육개혁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여러 분야에서 긍정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교육현장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으며 더욱 시급히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김대중대통령 당선자 역시 대선기간중 교육개혁의 계속적 추진, 이를 위한 GNP 대비 6%의 교육예산 확보를 공약하였다. 그러나 갑자기 불어닥친 IMF 한파와 더불어 그나마 어렵게 확보된 GNP 대비 5%의 교육예산마저 이미 1억 3천여 만원이나 삭감되고 말았다. 교육재정 못지 않게 우리 학교현장은 여러 면에서 개혁되어야 할 요소가 많은 점에서 IMF한파와 더불어 사회전반에 강제되고 있는 사회개혁의 바람은 교육개혁의 추진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예산이 없어도 개혁 의지만 있다면 실현할 수 있는 교육개혁안을 구상하여 새 정부는 보다 적극적으로 교육개혁을 추진해 가기 바란다.

1. 학교교육정상화방안 마련

우리 교육의 가장 고질적 병폐인 입시경쟁교육을 완화하기 위해 새 정부는 오늘의 파행적인 학교현실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는 발상의 전환을 꾀해 주기 바란다. 입시경쟁 속에서 시들어가고 죽어 가는 아이들이 숨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며 학생들의 인간적 삶이 보장될 수 있는 학교교육정상화 방안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다.

1) 과열입시경쟁교육의 주범인 보충수업은 전면적으로 폐지되어야 한다.

우리의 교육목표를 인성과 창의성, 더불어 사는 공동체 정신의 함양에 둔다 할지라도 학생들에게 지나친 경쟁을 강요하고 성적 이외에는 아무 것도 생각할 수 없게 만드는

입시위주교육,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강요되는 강제보충수업이 존속하는 한, 우리 교육의 정상화 및 교육개혁은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 자율학습이나 위성방송의 시청 역시 철저히 학생 개개인의 자유의사에 의해 선택되어야 한다.

2) 학생들의 인성과 창의성을 복돋울 수 있는 특별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및 학생자치활동을 정착시키고 활성화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적, 재정적 지원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아무리 우리사회가 학력위주의 사회라 할지라도 학교마저 이를 쫓아 입시교육에 매몰되고, 성적만으로 학생들을 평가하는 잘못된 관행이 언제까지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인가? 성적 이외에 학생 각자가 가진 소질과 적성이 정당하게 평가받고 존중받을 수 있는 학교풍토를 만드는 데에 모든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3) 모든 학생에게 일률적으로 강제되는 교과과정을 지양해야 한다.

문·이과, 학생들의 적성과 소망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일률적으로 강제되는 국·영·수 위주의 교과과정을 지양하고, 학습량을 하루 빨리 대폭 경감시켜 학생들의 공부스트레스를 해소시켜야 할 것이다.

4) 고교평준화정책은 유지, 확대되어야 한다.

고교비평준화지역에서 빚어지는 초·중학교에서의 과열입시경쟁,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 중학교에서도 강제되는 보충수업, 우수학생 선발과 유치를 둘러싼 고교간의 과열경쟁과 이로 인한 비교육적 양상들이 날로 심화되고 있다. 비평준화지역의 평준화지역으로의 이행과 더불어 고